

### C#3

나루 : (경직된 듯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 : (차가운 말투로) 아들, 학원 잘 가고 있니?

나루 : 네 어머니, 수학학원 끝나고 영어학원 가고 있어요.

엄마 : 그래, 잘하고 있네.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지금 안하면 나중에 더 힘든 거 알지? 엄마가 그래서 아직도 후회하잖니. 우리 아들만이라도 커서 후회하지 않게 엄마가 열심히 노력중이니까 우리 서로 노력하자꾸나.

나루 : 네 잘 알고 있죠. 저도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엄마 : 그래. 그럼 밤에 집에서 보자

나루 :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는다)

### INSERT - F.S

엄마는 보이지 않고 문 앞에 나루만 서있다.

혼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루.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나루야. 엄마가 계속 말하잖니? 그림쟁이들은 나중에 밥 못벌어 먹는다니까? 커서 뭐 화가되면 집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대기업 취직한 애는 정장입고 다니는데, 너는 팔토시하고 앞치마 입고 다닐래? 엄마가 너 성공시켜준다니까? 허튼 망상에 그만 빠지고 넌 그냥 엄마가 짜준 플랜대로 살면 돼. 나루야 넌 공부만 하면 되는거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니?

나루: (죄송하다는 듯이) 네 어머니. 공부는 계속 할 건데, 취미로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들이니까 그 시간에도 공부해야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앞으로 어머니 말씀만

믿고 따를게요.

### C#2 - F.S

나루 : 네 어머니

엄마 : 김나루! 너 이거 뭐야? 내가 미술하지말고 공부하라고 했지?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더니, 요즘 왜 그래?

나루 : 네? 무슨 말씀,,,

엄마 : 방에 있는 이 그림들 뭐야? 그동안 공부한다면서 그림그린 거 아냐? 김나루,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해? 공부는 열심히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나루 너가 그림을 잘 그리면 또 몰라. 너 그림에 재능 없어. 너 이 실력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루 너 정도의 그림 실력으로 절대 성공 못해. 혹시나해서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진정한 듯이) 나루야. 이제 수능 얼마 안남았잖아. 대학가서 하고 싶은 미술 하든 말든 엄마가 뭐라 안할게. 수능 전까지만 공부하자고. 일단 서울대 경영 붙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좀만 더 참자 나루야. 일단 이 그림들은 공부하는 데에 방해되니까 버릴 거야. 토 달지 말고 엄마 말 들어.

나루 : (기어가는 목소리로) 네에.. 알겠어요